

9월 20일 토요일 / 부탄 (36위)

부탄에서는 모든 국민을 불교 신자로 간주합니다. 부탄 정부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지역 당국은 기독교인들에게 대출 신청, 부동산 등록, 취업 지원, 신분증 갱신 등의 필수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탄에 법적으로 교회가 생겨 부탄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9월 21일 주일 / 모잠비크 (37위)

모잠비크 북부 카부델가두주에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며 수십 명을 참수하고 수천 명이 피난했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교회, 경찰서, 학교 등이 불타고, 기독교인 가족이 집중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주민이 공격을 피해 도망쳤고,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기독교 공동체가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박해를 잘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 22일 월요일 / 스리랑카 (61위)

스리랑카 북중부와 사바라가무와 지역에서 두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반대에 직면해 예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룬칸트 목사는 새 예배당을 세웠지만, 마을 주민들의 위협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성도는 죽이겠다는 위협도 받았습니다. 사미라 목사는 이웃의 반복된 신고와 언어폭력을 견디며 예배를 지속하고 있으며, 공무원들과 승려들까지 교회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목회자와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모든 위협과 반대가 멈추며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 23일 화요일 / 인도네시아 (59위)

인도네시아 아체 출신의 대학생 압둘은 세 번의 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비밀리에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가족과 사회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아 결국 집과 학교를 떠나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그를 속여 강제로 데려가 종교의식을 강요했지만,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탈출해 다시 신앙 공동체와 연결되었습니다. 압둘과 같은 새 신자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 24일 수요일 / 말리 (14위)

말리 중부 투반쿠라 마을의 기독교인들은 무장 이슬람 극단주의 하디스트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마을을 떠나야 했고, 교회도 2025년

4월에 폐쇄되었습니다. 에녹 목사와 가족은 총격으로 인해 피난했으며, 부목사도 납치되었다가 기도로 풀려났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성도가 흩어져 있고, 남은 이들은 위협 속에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반쿠라 마을에 평화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돌아와 교회가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9월 25일 목요일 /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오늘 원주성결교회(정운민 담임목사)에서 원주 지역 설명회가 있습니다. 많은 원주 지역 목회자와 성도가 참여하여 오픈도어 선교회 사역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주 지역 교회가 전 세계 박해 받는 교회와 성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 26일 금요일 / 차드 (49위)

2025년 6월 전도 활동 중 체포된 8명의 기독교 청년이 8월 8일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체포 이후 부모들과 교회 연합이 석방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차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기독교인은 여전히 사회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박해를 받습니다. 차드에서 기독교인에 관한 편견과 박해가 완전히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9월 27일 토요일 / 인도 (11위)

2025년 7월 6일, 마하라슈트라 솔라푸르에서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예배 중인 교회를 침입해 목회자를 폭행하고 강제 개종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성찬식에서 포도주 사용을 문제 삼으며 목회자를 공격했고, 이후 허위 정보가 유포되어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은 기독교인을 공격하거나 살해할 때 현금 보상을 제안하는 등, 혐오 발언과 폭력 조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주께서 마하라슈트라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켜 주시고, 허위 정보와 폭력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9월 28일 주일 / 쿠바 (26위)

쿠바 산티아고의 '성 베드로 사도 선교교회'는 최근 3개월 동안 세 차례 공격을 받았으며, 창문 파손과 재산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적으로 50건 이상의 교회 절도 및 훼손 사건이 보고되었고, 34개 이상의 교회와 수도원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도난 품에는 가전제품, 예배 장비, 종교 물품, 기부금까지 포함되며, 이는 교회의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사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민들이 붙잡은 범인들도 처벌받지 않아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쿠바의 교회가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9월 29일 월요일 / 말리 (14위)

세구 지역의 투반쿠라에 위치한 복음주의 개신교회(EEPM)는 반복된 무장 공격으로 인해 2025년 4월 문을 닫았고, 대부분의 성도가 마을을 떠났습니다. 목사 에녹과 가족은 3월 공격 후 급히 피신했으며, 교회 지도자였던 야쿠바는 부활절에 납치되었다가 5월에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교인은 공포 속에 흩어졌고, 남아 있는 이들은 모이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임하고 다시 교회 문이 열려 예배드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9월 30일 화요일 / 니카라과 (30위)

니카라과의 종교 자유는 오르테가 정권 아래 점점 위협받고 있으며, 교회들은 법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지도자들은 감시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론 목사는 가족 방문 후 귀국을 시도했으나, 정부에 의해 아무 설명 없이 입국이 거부되어 가족과 교회로부터 격리된 채 체류 비자 만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는 2023년부터 법적 지위를 상실했고, 여권 갱신도 부당하게 지연되는 등 지속적인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론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니카라과의 교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교회가 억압 속에서도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월력의 기도제목들은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요청하기에서 월간 『오픈도어』 OpenDoors 신청 또는 한국오픈도어로 전화하시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등록번호-중랑, 라00042 부록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5년 09월
VOL.

기도월력 281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찢는 것이 아니겠느냐”

- 이사야 58:6 -



9월 1일 월요일 / 이란 (9위)

이스라엘 간 휴전 이후, 이란 전역 21개 도시에서 최소 54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되며 박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명확한 혐의 없이 억류되어 가족들은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 놓여 있으며, 일부는 현재 위치조차 알 수 없습니다. 친정부 언론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시온주의 연계 세력’으로 묘사하며, 국가의 적으로 몰아 증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모호한 혐의로 기독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어 종교 박해가 더 심화할 우려가 큼니다. 이란 땅에서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9월 2일 화요일 / 아라비아반도

최근 아라비아반도에서 정부의 압력으로 여러 핵심 지도자가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교회 공동체는 큰 타격을 입었고, 추방된 지도자들은 새로운 거처와 사역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 분별력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교회에 큰 도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추방된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9월 3일 수요일 / 예멘 (3위)

지난 6개월간 예멘의 교회는 새 신자들의 유입과 기존 신자들의 훈련, 세례 등 신앙의 성장으로 희망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의 신앙 참여도 증가하고 있어 공동체 전체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은 여전히 어려우며, 일부 지역에서는 박해와 죽음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있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멘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씨앗이 많은 생명 안에 깊이 뿌리내리길 기도합니다.

9월 4일 목요일 / 에리트레아 (6위)

에리트레아 정부는 특정 교파만 인정하고 있으며, 복음주의자 및 기타 비전통적 교회와 무슬림 출신 신자에 관해서는 대해서는 가혹한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안군은 집마다 급습하여 수백명의 기독교인을 악명 높고 비인도적인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릴 만큼 감시와 통제가 심합니다. 전화 통화와 인터넷 사용을 철저히 감시하며, 기독교인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체포된 기독교인들이 풀려나고, 체포된 이들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 5일 금요일 / 말레이시아 (51위)

켈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소녀였지만,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진행된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켈리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고, 청소년 모임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켈리의 삶은 복음으로 변화되었지만, 가족은 신앙 활동을 제한하며 제자 훈련 참여도 막고 있습니다. 현재 켈리는 외로움과 저항을 마주하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켈리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녀의 삶을 통해 가족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9월 6일 토요일 / 튀르키예 (45위)

오늘날 튀르키예는 무슬림이 되는 것을 튀르키예 정체성의 일부로 보는 강한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개종자는 가족들로부터 마음을 바꾸라는 강한 압박과 함께 관계 단절의 위협을 받습니다. 또한 기독교인 망명 신청자들과 구직자들은 차별받습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그리스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교회들도 법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거부당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9월 7일 주일 / 소말리아 (2위)

폭력적인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정부와 전쟁 중이며, 소말리아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형태의 샤리아(이슬람법)를 시행하고, 소말리아에서 기독교 근절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심만 받아도 가택 연금, 강제 결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샤바브의 공격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 8일 월요일 / 부르키나파소 (20위)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부르키나파소의 13살 소녀 세누와 콩바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소녀는 학업을 중단해야 했지만, 후원자본들의 도움과 지원으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누와 콩바리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9월 9일 화요일 /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오늘부터 오픈도어 기도학교가 시작됩니다. 브래더 앤드류와 오픈도어 개척자들이 가졌던 신앙의 유산을 잘 배우고, 오픈도어 기도 용사로 온전히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9월 10일 수요일 / 알제리 (19위)

2023년 알제리의 거의 모든 개신교 교회는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독교 개종을 정신 질환으로 여깁니다. 이슬람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알제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알제리 성도와 공동체에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9월 11일 목요일 / 라오스 (22위)

라오스 공산당 정부는 등록된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 활동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승인을 받은 교회 중 약 75%는 건물이 없습니다. 모든 모임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므로 목회자가 등록되지 않은 가정 교회를 목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새 신자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불교를 믿는 지역 사회에서 외부인 취급을 받으며 가족과 지역 당국으로부터 폭력적인 반대에 직면합니다. 마을 지도자들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새 신자들을 배척하고 마을 밖으로 내쫓기도 합니다. 주께서 공산 당국의 감시를 받는 라오스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9월 12일 금요일 / 코모로 (42위)

코모로 제도에서는 수니파 이슬람 외의 다른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도 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인은 추방될 수 있으며, 기독교를 전파하는 현지 기독교인들은 기소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지정된 세 곳의 교회에서만 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기독교 관련 자료를 소지한 것이 발각된 사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코모로의 법과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누구나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 13일 토요일 / 파키스탄 (8위)

파키스탄 성도들은 매일 신성 모독죄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들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거짓 신성 모독죄로 군중에게 폭행당해 순교한 나지르 마시 형제의 가족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파키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성 모독죄의 거짓 고발과 군중의 폭력이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9월 14일 주일 / 네팔 (54위)

힌두 민족주의가 네팔을 더욱 강한 힌두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데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체포된 네 명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경이 불태워진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9월 15일 월요일 / 콜롬비아 (46위)

콜롬비아 태평양 연안의 교회가 게릴라 집단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살로몬 목사가 담임했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피해 떠났습니다. 살로몬 목사님도 벌목 일을 잃었습니다. 게릴라 집단의 압력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있는 콜롬비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9월 16일 화요일 / 나이지리아 (7위)

6월 8일에서 6월 14일까지 북부 베누에주에서 풀라니족 무장 세력에 의해 218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매일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9월 17일 수요일 / 콩고민주공화국 (35위)

7월 27일 주일 아침, 테러 단체인 민주연합군(ADF)이 코만다를 공격하여 가톨릭교회 신도와 주민들을 최소 20명이나 살해했습니다. 또한 교회 근처 상점과 사업체들이 약탈당하고 불에 탔습니다. 코만다 주민을 민주연합군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9월 18일 목요일 / 이란 (9위)

이스라엘의 12일간의 공습(6월 13~24일) 이후, 이란 당국은 대내적 단속을 위해 12일 동안 700명 이상의 체포와 10건의 '간첩'에 관한 즉결 처형을 했습니다. 6월 24일 휴전 이후 전국 21개 도시에서 43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소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들이 하루빨리 석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 19일 금요일 / 타지키스탄 (39위)

타지키스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150명 이상을 타지키스탄에서 추방했습니다. 경찰은 1인당 약 1,000달러의 뇌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추방을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새로운 피난처가 생겨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